

KISTEP 통계 브리프 2005-8호

여성인력 활용현황 분석



□ 여성박사배출현황 국제비교

- 박사학위취득자 중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취득자수(354명, 12.4%)는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여성박사학위자 배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절대규모로는 미국(9,303명, 36.5%), 여성학위자 비중측면에서는 프랑스(2,425명, 3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여성박사배출수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대만
S&T합계	1997	231 (11.7)	8,786 (49.4)	520 (11.6)	2,658 (29.1)	3,137 (53.9)	2,097 (41.7)	-	-	-	84 (12.1)
	2000	354 (12.4)	9,303 (36.5)	1,006 (13.6)	2,200 (18.6)	2,425 (36.9)	2,484 (29.2)	545 (29.5)	339 (34.8)	150 (46.2)	109 (7.5)
박사학위 전체 취득자수	1997	1,966	17,796	4,489	9,132	5,825	5,034	-	-	-	696
	2000(1)	2,865	25,509	7,401	11,803	6,577	8,521	1,848	974	325	1,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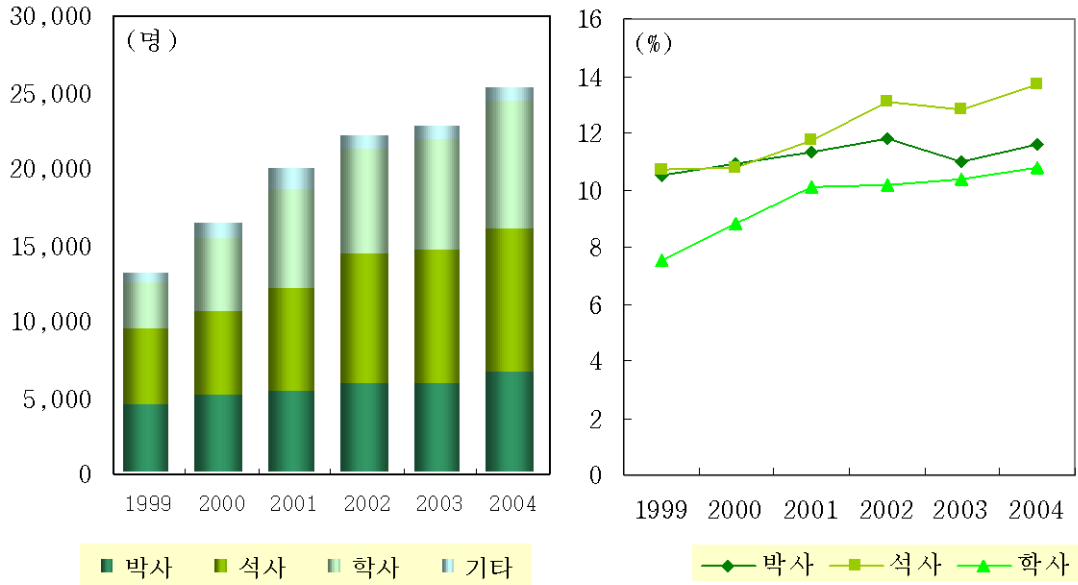
(자료원)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0/2004

□ 학위별 여성연구원 활용비중 추이

-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의 활용 비율¹⁾도 한국(12%)과 일본(11%)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28%), 핀란드(29%)는 높은 수준
- 한국의 여성 연구원의 비율 및 학위별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주 저조한 수준
- 2004년 전체 여성연구원 비율은 12%(25,198명), 각 학위별 여성연구원 비중은 박사출신의 경우 11.6%(6,577명), 석사출신이 13.7%(9,333명), 학사출신이 10.8%(8,420명)

1)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5

<그림 1> 학위별 여성연구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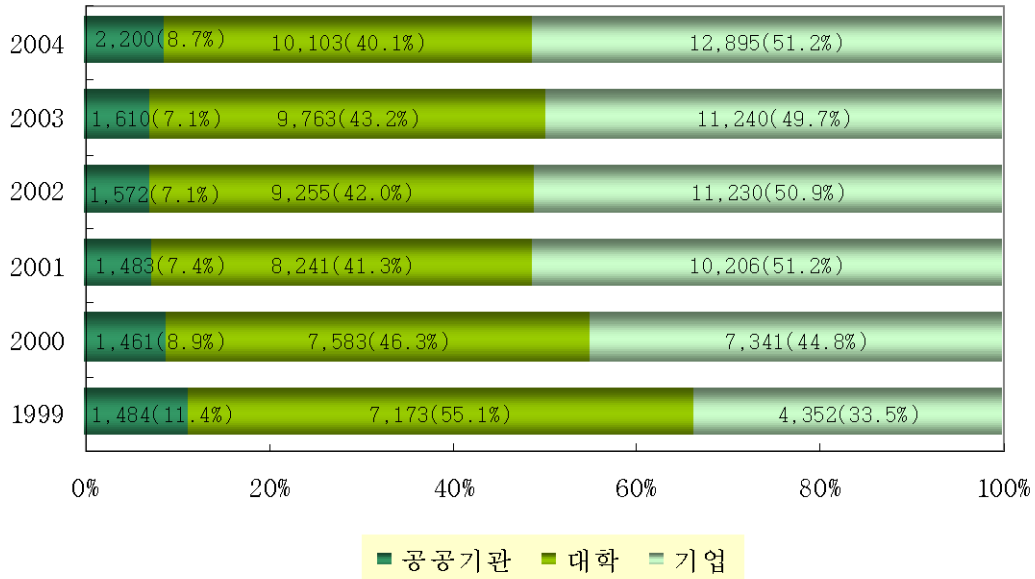


(자료원)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4

□ 주체별 여성연구원 활용비중 추이

- 기업의 여성인력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기업내 여성연구원비율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99년에는 산·학·연 중 대학에 여성 연구인력의 55%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4년 현재는 기업의 활용율이 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업의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9.6%로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 주체별 여성연구원 분포 변화



(자료원)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4

□ 시사점

- 향후 연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배출 및 활용도가 아직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여성연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여성인력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사고와 현재 공학의 여성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여성인력의 이학중심의 전공 편중현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여성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중요하며,
 - 더불어 여성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다음호는 “OECD 국가의 소득격차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자료관련 문의: 기술혁신지표팀 (02-589-2829)